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속도

익산시, 천주교 전주교구와 부지매입 협의 마무리 근대 건축자산 정비사업 연계 내년까지 건립 추진

익산시가 3.1운동 및 4.4만세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추진하는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이 시의 끈질긴 설득 과정 끝에 천주교 전주교구와의 매입 관련 협의를 이끌어 내면서 사업추진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사업예정부지 소유주인 천주교 전주교구와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매입 협의를 완료함에 따라 연내 매입과 관련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 외부복원 및 내부리모델링 과정을 거쳐 기념관을 건립 할 예정이

다. 시는 지난해 사업에 착수했으며 관련 단체들과 간담회를 거쳐 건립 기본안에 대한 협의를 도출하고 관련 예산 8억5,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원활히 진행해왔지만 사업예정부지 소유주인 천주교 전주교구와의 토지매입 협의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이 답보상태를 이어왔다. 그러나 독립운동 관련 기념시설이 없는 점, 근대 건축자산 정비사업과의 연계성, 문화재로서의 향후 가치 등 익산시가 꼭 추진해야 할 필요성과 당위성을 들어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매입 협의를 이끌어냈다. 익산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은 일제침탈에 맞서 가장 선봉장의 위치에 선 이규홍 의병장 등 익산의병 85인과 익산의 독립운동인 4.4만세운동의 주역들을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기념관을 건립하는 것으로서 4.4만세운동의 장소인 옛 습리장터 남부시장 인근에 조성할 예정이다.

기념관은 연면적 244㎡로 항일의병 전시관, 독립운동관 등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외부는 근대 건축자산 정비사업과 연계하여 사료를 근거로 옛 일제강점기 건물을 그대로 복원하며 내부는 관련단체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사료들을 모두 응집하여 전시공간에 활용할 방침이다.

/익산=정양원 기자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심리검사 활용 진로탐색 Master 특강' 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말까지 추가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원광대, 심리검사 활용 진로탐색 Master 특강 호응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대학일자리센터는 최근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실시한 '심리검사 활용 진로탐색 Master 특강' 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올해 말까지 추가 상담을 이어가고 있다.

9월 말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된 이 특강은 직업성향도검사, 직업가치관검사, 직업적성검사, 성격검사 등 4종의 고용노동부 직업심리검사를 시행하고 재학생들의 강점과 진로 유형을 파악해 자신에게 맞는 진로 설정을 돕는 맞춤형 해석 상담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Zoom 라이브 방송으로 학생들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실시간 방송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에 녹화된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영상 시청 후 대학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추가 상담 신청을 하면 이를 토대로 대면 또는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비대면 프로그램에 참여한 신입생들은 "가치관 검사와 성격검사 결과는 내가 생각했던 진로방향과 유사했으나, 적성검사와 흥미검사 결과는 평소 생각해보던 것과 매우 달랐다"며, "추후 코로나19가 안정화되면 대면 상담을 추가로 받고 싶다"고 참가 소감을 전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소극행정 탈피한 익산시 '적극행정' 성과 잇따라

상반기 우수사례 3건 선정 등

익산시의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최근 시에 따르면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3가지 분야가 선발됐다. 우선 지역 쌀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해 국내 즉석밥 시장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CI 햇반과 협의해 공급 물량을 대거 확보한 사례가 선정됐다. 1년 단위로 계약재배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매년 확실한 품질관리는 물론 업체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결과 공급물량이 2016년 1,850톤에서 올해 1만3,500톤으로 7배 이상 증가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산업단지 내 기업 유치에 적극행정 행보로 대규모 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해당 부서는 물류시설창고 설치가 불가한 제4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의사를 밝힌 A사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했다. 해당 부서는 물류시설창고 설치 계획과 함께 제4일반산업단지에 입주 의사를 밝힌 A사를 유치하기 위해 산업단지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모



익산시의 능동적이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적극행정' 이 다양한 분야에서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3가지 분야가 선발됐다.

색했다. 제4일반산업단은 관리기본계획 상 물류센터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였다 하지만 단순 관리업무에 그치지 않고 입주업체를 위해 승인기관과 적극적인 협의에 나서 산업단지 내 온라인물류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대규모 투자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이라는 효과를 거뒀다. 올해 초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업무

과정도 적극행정 사례로 뽑혔다. 익산시 최초로 지급된 재난기본소득은 긴급하게 업무를 진행해야 할 뿐 아니라 수시로 변경되는 지침으로 민원 대응에 어려움이 많았다. 해당 부서는 추진반을 구성해 역할분담을 했고 카드사 등과 협조 체계 구축으로 신속하게 대응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익산=정양원 기자

군산 관광 UCC 영상 공모전... 대상에 '파라다이스 군산' 수상

군산시에서는 코로나19 확산 피해 및 위축된 관광산업 분야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근대역사와 신비의 섬 고군산군도가 살아 숨 쉬는 지역의 도시 군산'을 주제로 군산 관광 UCC 영상 공모전을 개최하여 17개 작품을

최종 선정해 지난 18일 시상식을 개최했다. 공모전 접수는 전자메일을 통해 비대면으로 진행되었고 총 133작품이 접수됐다. 1차 요건심사를 통해 116건이 통과되고, 2차 심심사(영상분야)를 진행 해 50작품을 선정된 뒤 2차 본심

사(영상분야 및 관광분야) 후 1, 2차 심사 점수를 합산해 최종 17작품을 선정했다. 영예의 대상작은 '파라다이스 군산'이라는 작품으로 가족들 친구들과 함께했던 군산 여행지의 영상과 자작곡을 배경으로 재미있게 편집한 영상이 돋보인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축산악취 저감 '호평'

전년 대비 민원 57% 감소

익산시는 축산악취 저감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환경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축산농가 환경개선지원 사업을 추진한 결과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주요 축산악취 민원 농가를 포함한 54개 농가에 대해 악취저감제를 지원하고 축사 내·외 안개분무시설, 바이오커튼, 축사밀폐 등 저감시설 등을 지원했다. 이어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측정을 위해 농장별 복합악취, 암모니아,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해 악취저감 실태와 생산성 향상 여부 등을 조사 중에 있다. 주요 성과평가 지표로는 악취농도 저감 농가 생산성 향상 실적을 통한 현장평가, 중점시책 지역주민 만족도 조사 및 민원 발생건수로, 특히 생산성 향상 측면에서 대상 농가 54개(한우 18, 양돈 34, 양계 2)의 악취측정

및 설문조사가 완료된 41개 농장 중 양돈농가 9곳의 경우 평균 출하일수 5일 단축, 폐사를 20% 감소 등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타났다. 생산성 향상 성과를 소득으로 환산할 경우 돼지 1천두 사육 농가에서 연간 출하 단축에 따라 사료비 등 경영비 절감 800만원, 폐사를 감소에 따른 소득 1,500만원 등 약 2,300만원의 추가 영업소득이 발생했으며 악취저감 시설 운영에 따른 유지비용 1,000만원을 제외하고 평균 1,300만원의 소득이 향상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지원받은 농가는 "축사 내부 악취저감효과는 물론 습도 조절에 따른 호흡기질환 예방, 여름철 스트레스 감소에 따른 사료섭취율 증가, 먼지·해충감소 등 생육환경이 개선되고, 작업환경 개선, 인근 주민 불만에 따른 스트레스가 감소됐다"고 큰 만족감을 나타내 시의 악취저감시책 추진에 대한 축산농가의 행정 신뢰도가 높아졌다. /익산=정양원 기자

지역 소식통

재해예방 사업 '최우수'

군산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우수사례 공모에 군산 내항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최우수상(기관)에 선정됐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시는 구암지구 재해예방사업 등 앞으로 추진될 사업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그 동안 공모사업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기 위해 민·관 전문가로 컨설팅단을 구성해 사업의 필요성, 재해위험 해소 효과성, 정비방향의 적절성 등이 사업계획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최우수로 선정된 내항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해안가 저지대의 침수위험지구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139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 배수펌프장을 조성했다.

지난 2017년 준공 이후에는 단 한 건의 침수피해도 발생하지 않아 도심 시가지 15ha의 침수예방 효과를 거뒀으며, 한반도 부지 무상사용에 따른 2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등 내실있는 사업 추진으로 재해 예방에 현저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드림스타트 드림가족 공연데이트

익산시드림스타트(시장 정현웅)는 지난 17일 익산예술의전당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및 가족 100여명을 대상으로 '드림가족 공연데이트'를 실시했다. 이번엔 관람한 공연은 동화발레 '오즈의 마법사 도로시의 모험'으로 평소 문화체험 및 여가활동이 어려운 드림스타트 아동과 가족들에게 가족 상호 간 정서 함양을 통해 회복을 도모하고자 추진하게 된 사업이다. 공연을 관람한 한 부모는 "코로나19로 아이들이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 문화체험을 해주고 싶었는데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발 빠르게 가족들과 함께 할 기회를 만들어 주어 너무 감사드린다"며 "멋진 퍼포먼스를 보면서 스트레스가 풀리는 아이도 부모도 모두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익산=정양원 기자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